**연중제20주일(2018년 8월 19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요즘 몇 주째 계속해서 주일복음으로 요한 복음 6장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오천 명을 먹인 기적이야기로 요한 복음 6장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 기적 이야기 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즉 ‘성체 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밝혀주는 징표가 우리 성당에 하나 있는데, 바로 감실 앞에 있는 ‘빨간 등불’입니다. 오늘은 이 ‘빨간 등불’의 의미에 대해서 몇가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이 빨간 등불은 예수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이 현존은 단순히 느낌이나,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영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미사가 끝나면 성당 문은 잠기고 아무도 없겠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그리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는 동안, 이 빨간 등불은 항상 밝혀져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화창하거나, 덥거나, 춥거나 언제나 이 빨간 등불은 밝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거나 늙거나, 항상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항상 이자리에 어김없이 계십니다. 이것이 이 빨간 등불이 상징하는 첫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등불의 두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 항상 여기에 양식으로 현존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의미있는 모습으로 계시는 것, 바로 양식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밥’으로 함께 있는 겁니다. 배고풀때 항상 채워주시는 우리들의 ‘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또 늘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의 ‘밥’이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아무런 차별이 없이 대하십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경제력, 혹은 사회적, 정치적인 권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만 보십니다.

그리고, 이 빨간 등불의 세 번째 의미.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가까이 하기 쉽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죠. 늘 가까이 하기 쉬운 당신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원하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절망과 어려움, 근심, 걱정들 다 가지고 예수님께 언제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치유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이곳은, 어려움에 처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세기 동안 도움을 청하며 기도했왔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훌륭한 수도회가 창립되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빨간 등불 앞은, 수많은 교황들과 주교들과 사제들이 영감을 청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도승들과 수도자들이 기도하며 용기를 얻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기도하며 치유되었던 바로 그 자리이고,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이 기도하며 위로를 받았던 자리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기도와 청원들이 전해진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이 빨간 등불 앞에서 수많은 세월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전 세계 어떤 성당을 가던지, 주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이 빨간 등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빨간 등불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이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빨간 등불’의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늘 가까이 하기 쉬운 모습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빨간 등불.

오늘 복음에서 또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 생명의 빵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